



'눈높이 불서' 안 만드나 못 만드나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받았던 충격은 20여년 전 30대 초반 팔만대장경을 만난 일이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재미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깨닫고 느끼야 할 이야기들이 진작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특히 어린이용 동화로 개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충격의 이유 중에 하나였다. 어린이들을 불교의 품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렇게 쉽고도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왜 여태껏 불교를 격정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팔만대장경을 바탕으로 한 불교 동화는 다른 종교에 비하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도로 빈약한 현실이다. 지금 시중에는 필자가 어린이 눈높이로 고쳐 쓴 부처님 이야기 시리즈 15권 정도

법회 활성화 안돼 독서도 부재 소재 무궁무진...외면 말아야

팔만대장경 등 몇 가지 전 권이다. 년 중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지는 불서는 열 손가락을 꼽기 힘들다. 불교동화가 개발되거나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책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고, 어린이 포교에 너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전국 사찰 중에서 정기적으로 어린이 법회를 여는 절이 얼마나 되는가? 어린이 법회가 열리지 않으니 까 아이들은 불교와 가까워질 사이가 없고, 불교 이야기를 접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팔만대장경 안에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가 쓰여 있는지 모른다. 지금도 집에 가면 '000종 창 불사...' 같은 플래카드가 커다랗게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본다. 이런 창 불사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에서 조금만 아이들에게 책을 사서 나누어 주는 그런 불사가 돌리면 안 되는지.

어린이 책은 어린이가 직접 선택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선택해 주는 경우가 많다. 집에 오는 불자들이 절 문을 나설 때 집에서 기다릴 내 아이들에게 책을 한 권이라도 사서 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면 절마다 상설 판매장이 들어설 테고, 절에서 책이 많이 팔리면 출판사에서라도 서로 불교 동화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는 주지 스님이 이끌어주면 금방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절마다 어린이 법회를 활성화하고 대장경에서 개 발한 동화를 읽히거나 들려 준다면 어린이 들은 대장경을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 불서 발간도 활성화될 것이다. 역경원이 만들어져 팔만대장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했듯이 종단이나 불교계 신문, 방송 등 매스컴 같은 데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 필생의 사업으로 어린이용 팔만대장경을 출판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먼 장래를 위해서 말이다.

"팔만대장경이 국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모르면 그거야 한낱 나무 판자때기일 뿐이다"라고 하신 어느 스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이슬기(동화작가·은석 초등학교 교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변하고 있다

"해의청소년교류? 문화재지킴이? 파라미타에 가면 모두 할 수 있어."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이하 파라미타)가 최근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내외 청소년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로 부상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한·몽 청소년친선교류캠프(8월 11~16일)와 2004한일공동미래 프로젝트(8월 17~24일), 한·중 청소년지도자 초청프로젝트(9월 하순경) 등의 정부 국제청소년친선교류사업 주관단체로 잇따라 선정되는 등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는 것. 또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문화재모니터링'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새로운 봉사활동의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 제1회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모니터링'을 진행해 파라미타의 대표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파라미타가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협회의 공신력 향상에 매진하는 것은, 더 이상 불교계 청소년 대표기관으로서 각 지부·지회 위주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화' '다양화'에 발맞춰 국내외 청소년 문화를 창출, 선도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러한 의지는 6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진 '제2회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에서도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파라미타는 재가 이사 선임과 TF팀 구성 문제를 합의하고, 합의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보다 전진하기 위해 협

회의 내실부터 확고히 다지겠다는 것이 다. 특히 재가이사 선임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단체의 특성을 살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역량 있는 재가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라미타는 교육 및 정·재계 등 관련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거나 그 외 상응한 경력에 있는 사회인사 중 재가 이사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5여 명을 재가이사로 내달란에 선임할 방침이다. 또 전국 교법사들을 중심으로 교원 연수, 조직활성화, 프로그램개발 등 3개

의 TF팀을 구성해, 교원 연수의 상설화, 파라미타 분회조직 방법연구, 파라미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밖에 파라미타는 매년 중앙이 주최가 되어 열었던 '청소년친선교류캠프(8월 4~7일)'를 올해 처음으로 충북지부에 위임해 지방발전을 꾀하고, 일년에 한두차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전통문화재지도자 양성과정'을 상시 운영해 학교교육 내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파라미타 회장 원택 스님은 "파라미타의 사업들은 한국불교문화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진행돼 국내뿐 아니라 국외 청소년사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장점을 심본 살려 국내외 모든 청소년들을 부처님의 품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내실 다지며 세계화 날개 활짝

국제 청소년친선교류 주관·문화재모니터링 인기 재가 이사 선임으로 전문성 확대... "발전의 힘"

재가 이사 선임으로 전문성 확대... "발전의 힘" 것이다. 파라미타는 교육 및 정·재계 등 관련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거나 그 외 상응한 경력에 있는 사회인사 중 재가 이사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5여 명을 재가이사로 내달란에 선임할 방침이다. 또 전국 교법사들을 중심으로 교원 연수, 조직활성화, 프로그램개발 등 3개

것이다. 파라미타는 교육 및 정·재계 등 관련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거나 그 외 상응한 경력에 있는 사회인사 중 재가 이사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5여 명을 재가이사로 내달란에 선임할 방침이다. 또 전국 교법사들을 중심으로 교원 연수, 조직활성화, 프로그램개발 등 3개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에게 선임장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중앙신도회 회장단 선임식 개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 회장단 선임식이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포교원장 도영 스님, 중앙신도회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선임식에서 법장 스님은 치사를 통해 "다종교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가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그 동안 양분화 있던 두 신도단체가 통합된 만큼 하나로 똘똘 뭉쳐 불교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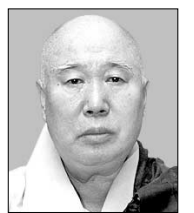
새롭게 선임된 회장단은 △명예회장 선진규 △회장 백창기 △수석부회장 명호근 △부회장 홍옥진, 정인아, 한이우, 이연숙, 손안식, 이재성, 윤소나, 김화남, 배조용, 이준호, 박준영, 여익구, 윤천수, 김한식, 김진관, 문명진, 조동룡, 김규범, 맹재선, 김성호 △감사 김중옥, 유강근 등 25명이다. 중앙신도회는 회장단과 상설위원장, 사무처 부장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개최, 고문 및 지도위원 추천과 상설위원회, 지역신도회 구성 및 임원 개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제8대 회의록 발간 조계종중앙총회

1984년 9월부터 1988년 3월까지 열렸던 <제8대 중앙총회 회의록>이 발간됐다. 회의록에는 덕총총림 설치 및 종단 고시법의 도입과정과 신홍사 사건의 극복과정도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중앙총회의장 지하 스님은 "종도들에게 종단 제반사를 해결할 지혜를 제공하는 보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선학원 새 이사장에 도형스님

재단법인 선학원은 6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도형 스님(서울 기원정사 주지·사진을 만장일치로 새 이사장에 추대했다. 도형 스님은 전 이사장 정일 스님의 장여임기인 2007년 1월까지 이사장직을 맡게 된다. 도형 스님은 "화합하고 수행하는 선학원이 되도록 사부대중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1960년 직지사서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형 스님은 직지사서운하 스님을 계사로 1960년에 사미계, 1969년에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 보살계를 각 수지했다. 남동우 기자

"신행·교육도량 면모 갖출것" 조계사 신임재선관리인 원담스님

6월 15일 서울 조계사 새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된 원담 스님(중앙총회의원은 17일 조계사 주지직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스님은 1978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2003년 육천암 주지와 청주 불교방송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소감은? -원주 소임을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 한달 내 조계사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 ▲국장 및 중무원 인사는? -화합 차원에서 다 끌어안고 갈 작정이다. 현재 공석 중인 2개의 국장 자리를 보강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이다. ▲총무원과 조계사의 관계 정립은? -총무원, 신도회, 중무원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조계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향후 조계사 운영 방침과 발전 계획은? -수행, 교육, 쉼터 공간을 분리하겠다. 수행은 대웅전과 극락전, 교육은 교육관, 쉼터는 우정국로 등으로 분산하겠다. 특히 조계사 인근 지역을 문화벨트를 묶는 사업을 펼치겠다. 이를 위해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상설화 할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우·리·절·은·불·자·여·러·분·을·사·랑·합·니·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요일 시간 법외명 강익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지장경강의
매주목요일 10-15시 지장경독송회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동선회 주계별특강
특별기도
[1]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 2004년 7월 11일 - 8월 30일(만 50일간)
[2]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 2004년 8월 15일 - 8월 22일(만 7일간)